

‘농촌에서 여름을 즐기자’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6개 읍면 19개 마을

무주군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가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6개 읍면 19개 마을에서 개최된다.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는 주민과 마을이 주체가 돼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마을소득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무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름의 매력과 맛과 멋, 그리고 정(情)을 만끽할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에서는 앞섬과 후도, 추동, 서면마을이 참여한다. ‘앞섬마을’은 ‘핑크 섬으로 가즈아!’란 구호를 내걸고 복숭아 마을의 특성을 살려 복숭아 따기와 빙수, 썰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으며 ‘후도마을’에서는 소망동, 희망시계 만들기 등 공동체 체험을 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추자가 특산물인 ‘추동마을’에서는 가래추자 나무명패 만들기, 물고기 잡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서면마을은 맛있고 시원한 여름을 주제로 복숭아 병조림 만들기 등을 준비했다.

무풍면에서는 무풍송자마을이 참여했다. 사과와 고장 무풍면 ‘무풍송자마을’에서는 산촌체험 참나무구이 만들기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과피자와 천연비누, 천연 손수건 만들기 등이 가능하다.



무주군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가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6개 읍면 19개 마을에서 개최된다.

설천면에서는 ‘호룡불마을’이 기다리고 있다. 시골밥상을 받으며 카누타기와 우드스피커 만들기 가능하다.

적상면 내창, 치목, 초리, 서창, 여원마을도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를 준비했다. ‘내창마을’에서는 조조티매트 만들기, 밤상머리예절 교육 등이 진행되며 ‘치목마을’에서는 삼베짜기를 비롯한 삼베편백향주머니 만들기, 목공예 체험 등이 진행된다.

‘초리마을’에서는 ‘초리물장구놀이 축제’를 준비했다. 다슬기와 물고기 잡기(족대낚시), 머

그집 만들기가 가능하며 ‘서창마을’에서는 야생화 브로치와 도자기 모빌, 캘리그래피 액자 만들기를 해볼 수 있다. ‘여원마을’에서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셔츠와 이불, 스카프 만들기, 진원, 죽장, 통안마을이 참여한다.

안성면에서는 두문, 명천, 수락, 진원, 죽장, 통안마을이 참여한다. 낙화놀이, 고장 ‘두문마을’에서는 ‘낙화놀이 바람놀이’를 주제로 곤충액자와 부채만들기를 진행하며 ‘명천마을’에서는 송어잡기, 덕유산 친환경 포고 따기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물놀이 관리지역 특별점검

진안군은 여름철 물놀이 특별대책기간(7.13~8.15)을 맞아 물놀이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물놀이 관리지역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17일 물놀이 관리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물놀이 안전시설물과 인명구조장비 등을 점검하며 물놀이 관리지역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관내 익사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본격적인 물놀이철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외에도 진안군은 물놀이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11개소에 유급감시원 22명을 고정배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물놀이 안전 T/F팀을 구성하여 진안경찰서, 무진장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과거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입수 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계곡에서의 다이빙 금지 등 물놀이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물놀이 감시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더운 여름은 장수 휴양림에서

와룡자연휴양림·방화동자연휴양림 운영 시작

장수군은 17일부터 와룡자연휴양림과 방화동자연휴양림에 대해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 손님맞이 체제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천천면 비룡리 자락에 위치한 와룡자연휴양림은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장수군 팔공산(1151m)에 조성됐으며 33실 350여명이 숙박 가능한 시설과 야영장, 야영데크, 캠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이날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영장과 물놀이장 개장 준비를 완료했다. 국내 최초의 국민가족휴양지로 전국 8대 중산에 속하는 장안산(1,237m)의 방화동계곡에 조성돼 명품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방화동자연휴양림은 덕산용소와 방화 폭포, 장안산 등 빼어난 자연경관을 품고 36실에 350여명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다.

전국 최초의 오토캠핑 시설을 조성했으며 야영장, 야영데크, 캠핑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목재문화체험장과 물놀이장등의 부대시설에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장수군은 여름 성수기 휴양림에 많은 관광객들이 불릴 것을 대비해 성수기 안전·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치매 있어도 안심 ‘무병장수 치매안심마을’

계북면 양악마을·외림마을 선정... 내달 말까지 운영

장수군이 치매예방·관리 취약지역에 ‘무병장수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한다.

17일 장수군에 따르면 15일부터 8월 말까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북면 양악마을과 외림마을 등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운영한다.

군은 앞서 5일 ‘치매 친화적 안심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군의회와 면사무소, 파출소, 노인복지관, 마을주민 등 15명의 민·관 합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가

졌다. 계북면은 14가구 이상 치매환자가 분포돼 있지만 타 읍면에 비해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치매예방사업이나 지원 사업 참여에 불편함이 제기돼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이를 해소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인식개선교육 ▲치매조기검진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예방체조 ▲치매예방교실(마음듣든, 뇌는 튼튼)운영 ▲인지강화교실(두뇌넉넉 프로그램)운영 ▲치매관련 북(BOOK) 콘서트 ▲판소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8월 2일에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뽕꽃’, ‘엄마하고 나하고’의 저자 전희식 작가를 초청해 주민들의 정서를 일깨우는 감성의 북 콘서트를 가질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전공 실습 대학생 6명으로 치매예방기획단을 구성해 치매예방 관리 홍보와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보조자로서 봉사활동을 벌인다.

장영수 군수는 “치매환자 돌봄은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육계 냉·음용수 급수 효과 탁월

관내 3개소에 시범 설치 운영

진안군은 여름철 폭염 대응으로 닭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을 성수면 김연경 농장 등 3개소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기술은 히트 펌프로 냉수를 생산, 음용수 탱크에 저장한 후 급수 배관 및 니플을 통해 사육 주령에 알맞은 온도로 자동 공급한다. 한여름에는 기존(평균 수온 24℃)에 비해 9℃ 낮은 15℃ 정도의 음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다.

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없어 다른 가축에 비해 체온 조절이 어렵고,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고온 스트레스가 커 사료섭취율과 체중이 줄고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

관내 3개소에 시범 설치 운영

육계에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육계 사육 시, 기존의 사육 방식보다 사료 효율이 높아져 4주령에서 육계의 마리당 중량이 평균 103g(중량 392 → 495g/마리) 늘고, 닭의 폐사율은 기존 18%에서 2.5%로 줄일 수 있는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김필환 소장은 “여름철 폭염 대응 육계 냉·음용수 급수시스템이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 폐사를 예방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관련 사업들을 검증 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청소년 휴먼예방 및 금연 UCC 공모전 무주에서 내달 22일까지 진행

무주군은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휴먼 예방 없는 건강한 무주 만들기’를 위해 ‘금연다짐! 건강다짐! 휴먼예방 및 금연 UCC 공모’를 진행한다.

주제는 휴먼예방과 금연,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한 콘텐츠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또는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법 및 장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제작(20초~3분 이내 분량)한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무주군 홈페이지로 접속해(https://www.muju.go.kr) 알뜰마당 무주 소식 고시공고 - 제목검색(UCC 제작 공모) 후 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 영상 파일 및 첨부, 이메일(gypsykh@korea.kr)로 하면(공모전-제목-성명 / 단체인 경우 대표 학생 1명이 접수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이해차 건강증진 팀장은 “청소년들이 UCC제작을 통해 휴먼의 해로움을 느낄 수 있어 휴먼예방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변 가족과 이웃들이 금연실천을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금연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읍, 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흥영)는 저소득층 아동 8명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프로그램인 ‘생각이 커지는 아이’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생각이 커지는 아이는 진안읍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으로 학습과 가정환경이 취약한 초등학교 1~2학년(꿈동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독서 지도와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연말까지 총 42회로 진행되며, 아동전문 독서지도사가 독서 및 다양한 영역의 독후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단순한 독서지도가 아니라 인성, 생활습관, 교육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성장을 꾀하고 있다는데 특색이 있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신교성 한국도로공사 진안지사장은 “의미 있는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영 읍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나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여와 후원을 희망하는 경우 063-430-8142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